

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라는 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. 그때는 사람들이 호랑이, 곰 같은 무서운 짐승들과도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.





하루는 호랑이와 곰이 환웅님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. 그래서 환웅님은 호랑이와 곰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.



환웅님은 호랑이에게 쑥 한줌과 마늘 스무쪽을 주고 이것을 먹으면서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호랑이와 곰은 깊은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.



썩과 마늘을 먹자 곰과 호랑이는 뱃속에서 불이 나는
것처럼 매웠습니다. 성미가 급한 호랑이는 몇 번이나
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.



한 주일, 두 주일, 세 주일이 지났을 때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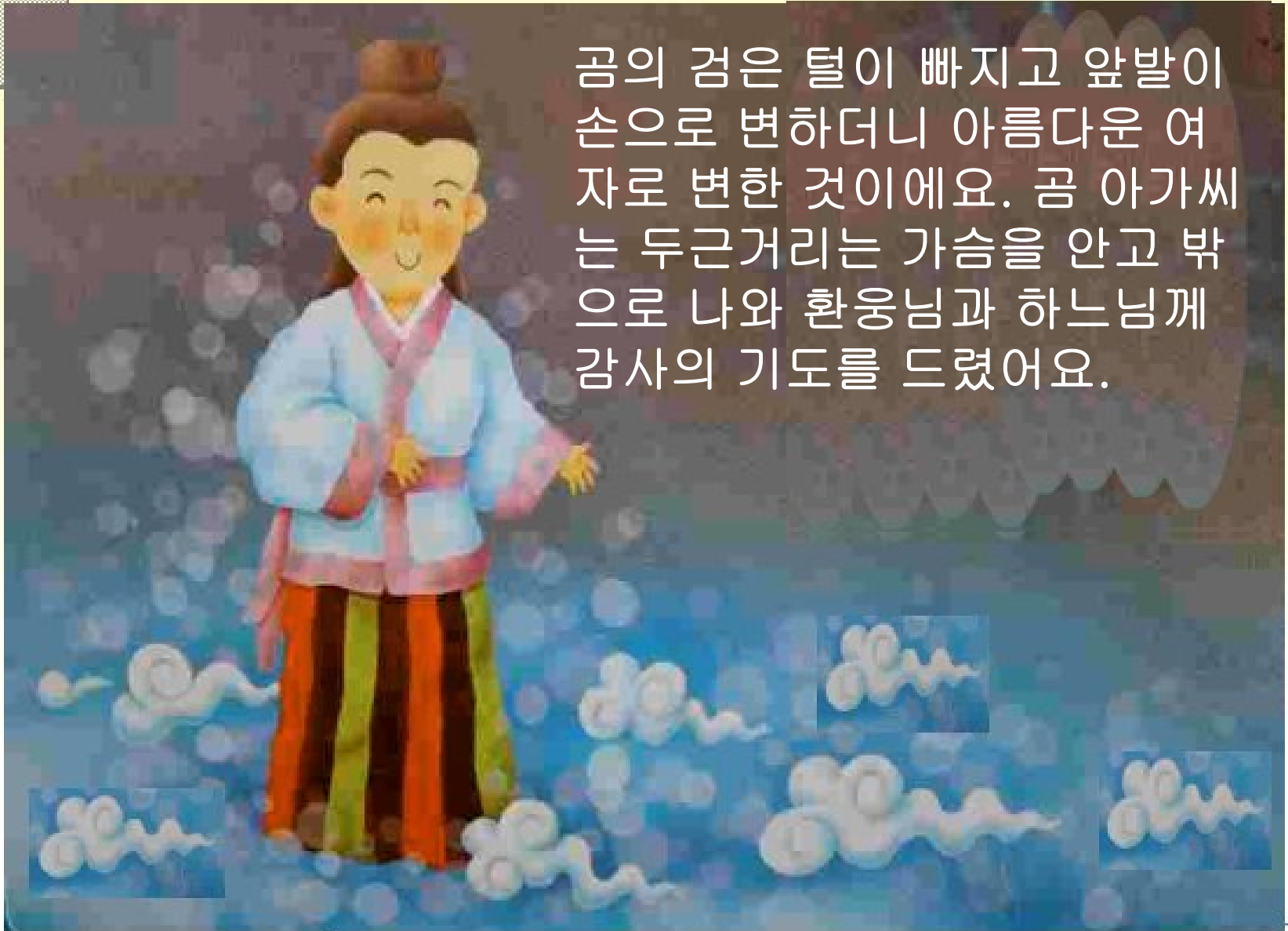


그러나 끈기있고 참을성 많은 곰은 호랑이가 나간 뒤
에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잘 견디어 냈습니다.



날이 가고 달이 가서 드디어 백일이 되던 날 곰에게
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 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
났어요

곰의 검은 털이 빠지고 앞발이
손으로 변하더니 아름다운 여
자로 변한 것이예요. 곰 아가씨
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밖
으로 나와 환웅님과 하느님께
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.





웅녀라고 이름을 지은 곰 아가씨는 환웅님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. 이 아들이 자라 우리나라를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.